

“문재인 부산, 안철수·정세균·김한길 열세 지역에 출마하라”

새정치 혁신위 고강도 인적쇄신안 발표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임기 마지막 날인 23일 그동안 준비했던 인적쇄신론을 발표하며 제1야당의 물갈이를 위해 마지막까지 감춰온 ‘매스’를 꺼내들었다.

혁신위는 우선 오전부터 부정·비리 의혹 인사에 대한 공천배제 방침으로 ‘물갈이’ 분위기를 조성하더니, 오후 계파 수장들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살신성인을 요구했다. 다만, 그동안 거론되던 ‘호남 대선 물갈이’나 ‘86그룹 하방론’ 등 특정그룹에 대한 쇄신론은 언급하지 않았다.

◇고강도의 인적 쇄신=혁신안에는 기존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성범죄, 개인 비리 등 형사범 중 금고 및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하급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자’까지를 포함해 공천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기소단계에서도 정밀검증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기소된 인사들에 대한 정밀검증의 경우 과거 기소 경력까지 소급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단 박지원 전 원내대표나 김재윤 의원 등이 공천 배제 대상 리스트에 오를 수 있다. 또 기소 상대인 신계륜·신학용 의원 역시 사실상 정밀 검증 대상으로 분류된다.

특히 혁신위는 과거 유죄판결에 대해 ‘반복 적용’을 하기로 하면서, 안희정 충남지사 역시 공천 배제 명단에 포함될 처지에 놓였다.

다만, 혁신위는 야당에 대한 과도한 정치탄압 등 억울한 판결이나 기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 공직후보자검증위에서 재직 3분의 2 이상의 위원들이 찬성할 경우 정상을 참작해 공천에서 배제하지 않도록 구체화하는 예외 조항을 뒀다.

◇계파수장들에 살신성인 요구=당 안팎에서 꾸준히 나오던 ‘중진용퇴론’과 ‘중진 취약지 차출론’도 실체를 드러냈다.

혁신위는 문재인 대표에게 부산 출마를 요구하는 동시에, 2007년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이후 당 대표

과거 기소경력도 소급 적용

박지원·김재윤 등 대상 될 수도

호남 대선 물갈이 언급 없어

일부 기준 모호…논란 클 듯

를 지낸 정세균·이해찬·문희상·김한길·안철수 의원에 “백의중군, 선당후사가 필요하다”며 “열세 지역 출마 등 당의 결정을 따라달라”고 요구했다. 다만, 각 인사들에 대한 요구는 미묘하게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부산 출마를 요구한 반면 안 전 대표를 향해서는 ‘살신성인’을 요구했다. 이는 사실상 부산 출마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해찬 전 대표에게는 ‘백의중군’을 의미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정 전 대표의 경우 사실상 지금 지역구인 충로가 적진인 아니냐는 의문도 나왔다.

◇모호한 기준=혁신위가 내놓은 일부 기준의 경우 자의적으로 적용될 여지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공천 배제대상 규정 중 ‘국민의 지탄을 받은 형사범’이란 표현이 해석하기에 따라 누가 포함될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또 사면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는 부분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구체 조항도 당의 주류 측에 유리한 상황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국민을 위해 정권과 싸우지 않고, 당의 정체성을 흔들고, 당원을 모독하며, 분열과 갈등을 조장한 조정대 의원을 비롯한 해당 행위자’라는 표현도 어디까지 해당행위로 봐야하는지를 두고 논란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을 비롯한 혁신위원들이 23일 서울 국회 당 대표 회의실에서 마지막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심사숙고” 안철수·김한길·이해찬 “거부”

새정치 혁신위 인적쇄신안 반응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로부터 열세지역 출마를 요구받은 전직 당 대표들과 하급심 기소로 공천에서 원천 배제 위기에 놓은 중진들은 대부분 반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반해, 문재인 대표는 혁신위의 부산 출마 권고에 “심사숙고하겠다”며 수용 가능성을 열어놔다.

열세지역 출마를 요구받은 안철수 전 공동대표는 “본질적 혁신에 먼저 충실하고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고 총선 전략은 이후에 고민하는 게 순서”라면서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해찬 전 대표 측은 “세종이 우세지역으로 볼 수 있느냐”며 “사실상의 강요를 통해 살신성인하라는 것인데 국민이 어떻게 생각할 것 같냐”고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과 정세균 전 대표 측에서도 “지역구 자체가 적지인데다 요충지”라며 “열악한 상황에서 새누리당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데 전직 대표라는 이유로 지역구를 버리고 다른 곳에 출마하라는 것은 참으로 무리한 요구”라는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

김한길 전 공동대표 측 관계자는 “김 전 대표가 ‘아무 반응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사를 보였다”며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역구민에게 인사를 다닐 계획”이라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 공천심사 원천배제 대상이 되는 박지원 전 원내대표는 트위터 글에서 “예외조항이 있지만 검찰에 우리 당의 공천권을 맡겨선 안 된다”고 비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얼기설기 색의 물감, 몽롱한 안개 이미지 한가득



(128) 가을 안개



책은 폴록 작 '가을의 리듬'(1950년)

“안개 속을 걷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다/담뽕과 돌은 모두 외롭고/수목들도 보이지 않는다/모두가 혼자이다/.../안개 속을 걷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다/살아있다는 것은 고독하다는 것/사람들은 서로를 알지 못한다/모두가 혼자이다”〈헤르만 헤세 작 ‘안개 속에서’중에서〉

아침 출근길, 안개가 자욱해서 가을 안에 들어 있음이 느껴진다. 안개 낀 날이면 지금도 반사적으로 학생시절 암송했던 헤세의 시가 연상되는데, 고독이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고독을 멋으로 알았던 그 시절이 안개처럼 가물거린다.

안개와 함께 떠오르는 그림도 있다. 잿색 폴록(1912~1956)의 작품 ‘가을의 리듬’(1950년 작)에는 몽롱한 가을 안개 이미지가 가득하다. 지금이야 이 그림에서 가을을 찾을 수 있지만 솔직히 이 작품을 처음 접했을 때는 가을도, 리듬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흰색, 검은색, 밝은 갈색, 청회색 등 네 가지 색의 물감이 얼기설기 이어지고 휘어질 뿐 미적 대상도 아니었고, 감동도 없었던 것 같다. 자유분방하고 무의식적인 표현이 낯설기까지 했다. 모를지기 회화란 사물이나 대상을 모방

하고 재현해야 한다는 전통적인 관념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미국 추상표현주의 미술의 대표작가로 꼽히는 잿색 폴록은 캔버스에 벽에 세우는 대신 바닥에 눕히고 아예 그림 속에 들어가 물감을 흘리고, 뿌리고, 쏟으면서 그리는 드리핑 페인팅, 액션 페인팅으로 유명하다. 커다란 캔버스와 화면에 중심적인 구도를 설정하지 않고 전체를 균질하게 표현하는 올 오버 페인팅도 잿색 폴록 작품의 특징이다. 어려서 그랜드 캐년의 가장자리를 측량하는 일을 하는 아버지를 도왔던 경험이 미국적 공간과 크기에 대한 감각을 키웠다고 한다. 추상표현주의는 미국이 처음으로 세계에 영향을 미친 미술운동으로 이로부터 뉴욕이 파리 대신 예술의 중심지가 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

새로운 예술의 세계를 개척했던 잿색 폴록의 첫발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막막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 외로움의 시간이 미술사에 큰 전환을 만드는 창조적 에너지를 잉태했을지 모른다. 〈광주비엔날레 전시부장·미술사 박사〉

초특가 일본여행

무안(광주)↔기타큐슈 직항

2015년 10월 9일(금) ~ 12월 28일(월)

패턴 : 매주 목(2박3일) / 토(2박3일) 출발

스케줄 : 무안(05:00) → 기타큐슈(06:10), 기타큐슈(01:50) → 무안(02:50)

✕ 항공기 :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 : A320-200 / 좌석 : 150석

비행기로

399,000원에 간다!~

(선착순 30명 한정)

기타큐슈/야마구치/미야자마 3일

459,000원(목) 549,000원(토)

1일차 (03:30) 무안국제공항 집결 ▶ (SFJ, 05:00) 무안국제공항 출발
▶ (06:10) 기타큐슈국제공항 도착 ▶ 칸몬대교를 건너서 이와쿠니로 이동 ▶ 일본전통 돌다리 키타이로 관광
▶ 이치쿠시마 신사 앞 바다 위에 우뚝 솟은 미야자마 오오도리이
▶ 미야자마의 상징이며 일본 국보인 이치쿠시마 본전
▶ 미야자마 오층목탑, 다카부타이
▶ 호텔[온천호텔 또는 1급호텔] 투숙

2일차 히노야마 전망대 ▶ 조선통신사가 머물렀던 역사적인 장소 아카마신궁
▶ 시모노세키 조약으로 유명한 춘범루
▶ 카로스트 지형으로 아름다운 히라오다이 트레킹(동굴포함)
▶ 무라사키가와 강 하구 서안의 언덕에 축성된 고구라성
▶ 서양식 건물에 모여 있는 모자코 레토로
▶ 일본 3대 야경으로 불리는 사라쿠야마 야경
▶ 기타큐슈공항 비즈니스호텔(2인1실) 투숙 및 휴식

3일차 (00:10) 기타큐슈 공항으로 이동 ▶ (01:50) 기타큐슈국제공항 출발
▶ (02:50) 무안국제공항 도착 후 그리운 집으로

무안 ⇄ 일본(기타큐슈) 직항

【1인 소호무역 장업자를 위한 시장조사 참가자 모집안내】

▶ **출 발 일** : 1차 - 2015년 10월 12일 (2박 4일)
2차 - 2015년 10월 15일 (1박 3일)
3차 - 2015년 10월 19일 (2박 4일)

▶ **모집인원** : 선착순 각 20명

▶ **포함내역** : 왕복항공, 숙박(조식포함), 차량(후쿠오카 시내 탐방시 제외)

▶ **모집마감** : 1차 - 2015년 10월 6일
2차 - 2015년 10월 8일
3차 - 2015년 10월 13일

▶ **문의전화** : 062-956-3979

■ **공동포함사항** 국제선 항공료, 무안 공항세, 전정보험료, 현지 공항세, 유류할증료, 펜션(다인실) 또는 호텔(2인1실), 식사, 차량, 한국어 가이드, 입장료, 1인당 여행자보험, 【특전】선착순 40명 무안공항 왕복 수송

■ **공동불포함사항** 싱글차지, 개인 경비, 가이드/기사 경비(30,000원)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http://www.joytour.kr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NAVER **조이투어** 검색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 **234-3222**

Fax, (062) **234-3141**

대표이사 최금환